

일본 가톨릭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드로 키베와 187순교자의 시복식을 맞이하여)



이데 요시오 토마스 아퀴나스
의료법인 눈의 성모회 성 마리아 병원 이사장

† 주의 평안

한국 가톨릭의료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을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의 무더위 때문인지 한층 더 깊은 가을이 느껴집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의 거센 파도가 일본에도 밀려들어 오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수 년에 걸친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해 사회 보장 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의료 제공 체제의 개혁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수개월의 정치적 혼미 그리고 경제 불황으로 인한 나라의 재정 부담 문제, 국민의 자기 부담금 문제와 함께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몇 년간 일본의 큰 전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12월말, 일본 가톨릭교회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시다만, 이번에는 일본 가톨릭중앙협의회에서 2007년 12월 말 현재의 “가톨릭교회의 현세”가 발표되었으므로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전체의 신자(성직자, 수도자 포함)수는 44만 7,72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4,851명이 줄었습니다. 이 원인은 과거 1년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신자를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신자

수는 43만 9,360명으로 남녀별로 남성 17만 5,147명(약 40%), 여성 26만 4,213명(약60%)입니다. 주교·사제는 1,515명(일본 관할 904명, 외국 관할 611명) 부제는 34명(일본 관할 28명, 외국 관할 6명), 대신 학생은 134명, 소신 학생은 57명입니다. 수녀는 5,944명(일본 관할 5,582명, 외국 관할 362명), 수사는 202명(일본 관할 105명, 외국 관할 52명), 세례를 받은 사람은 7,275명(유아 3,617명, 성인 3,658명), 결혼은 2,899쌍(가톨릭 신도들의 결혼은 279쌍)입니다. 주요 항목을 10년 전 1997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 신자 수는 5,808명이 증가했고, 주교·사제·부제는 237명이 감소, 수도자는 673명이 감소, 소교구는 13개 교회가 감소, 공소는 6개 증가, 유아 세례는 1,083명이 감소, 성인 세례는 434명이 감소, 결혼은 6,185쌍이 감소하여 작년은 10년 전의 약 3할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7월 31일 현재의 사제·수도자의 수와 그 평균 연령 등도 발표되었습니다. 사제는 1,589명(평균 62세, 일본 관할 932명, 외국 관할 657명), 종신 부제는 22명(평균 69세), 부제(37세)입니다. 수도자는 206명(평균63세, 일본 관할 154명, 외국 관할 52명), 주교는 추기경 1명, 은퇴주교 8명, 대주교 3명, 주교 12명, 보좌주교 2명입니다. 외국관할 사제의 국적은 스페인(88명), 미국(87명), 이탈리아(84명), 필리핀(39명), 프랑스(38명)의 순서로 많습니다. 수도회, 선교회에서 사제가 가장 많은 곳은 예수회(210명)로 전체 사제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언회(110명), 프란치스코회

“

일본교회의 시초는,
순교자들이 보여준 용기와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과,
꺼지지 않는 신앙의 증거로 생겼습니다.

”

(102명)입니다. 1549년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을 방문하여 가톨릭을 선교한지 약 400년이 경과하였지만, 이 10년간 일본 가톨릭의 추세를 보여주는 수치를 봐서는 쇠퇴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올해 11월 24일, 나가사키시에서 저희들은 “베드로 키베와 187순교자”의 시복식을 맞이합니다. 귀 협회로부터 최영식 회장 신부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이 참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복식에 참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응급 의료팀”이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의사, 간호사 관계자들의 협력을 받고 “일본 가톨릭 의사회·간호협회” 그리고 나가사키시에 거주하고 계신 가톨릭 의사·간호사 관계자, 후방 의료시설로서 “성 프란치스코 병원” 및 저희 성 마리아 병원의 의사, 간호사가 함께 연합체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와 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한·일 합동 응급 의료팀 편성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복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을 방문하여 선교 활동을 시작하고, 그 후 예수회의 선교사 바리냐노사가 일본의 문화, 종교를 이해하여 가톨릭을 선교하는 기본 방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1600년대)의 상황은 불교, 신도, 유교를 근본으로 하는 전통 문화가 주를 이루는 상황이었고, 위정자들의 생각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신을 믿는 신앙인 외국 종교로서의 가

톨릭 선교에 대해 배척하면서 신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복식은 당시의 사제인 베드로 키베와 3명의 사제, 그리고 184명의 신도들에 대한 순교자 시복입니다.

2001년 3월 3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일본의 주교들에게 “일본 교회의 시초는, 순교자들이 보여준 용기와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과, 꺼지지 않는 신앙의 증거로 생겼습니다. 그들의 영웅적인 증거는 일본 교회의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빛으로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일본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과 장래의 사명과 약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든든한 예언적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590년대 중반의 가톨릭 전체 신자 수 22만 명 중에서 사제가 40명 미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를 속일 셈입니까? 나에게는 밤길이 없습니다. 하물며 사형장으로 가는 길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신을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에게 순교자가 던진 한마디입니다.

주님께 감사

2008년 10월 10일

日本のカトリックのためにお祈り下さい。
(ペテロ岐部と187殉教者の列聖・列福式に際して)

2008年10月10日

医療法人 雪ノ聖母会
聖マリア病院
理事長 井手 義雄

† 主の平安

韓国CHAKの皆様方におかれましてはご健勝のことと存じます。

日本は、韓国も同様と思いますが秋の季節となりました。特に今年の夏の猛暑のためか一段と深い秋の訪れを感じます。

さて、アメリカで発生した金融危機の荒波が日本にも押し寄せてきております。日本においては、この数年の少子高齢社会への移行に伴う抜本的な社会保障制度の改革が実行されています。具体的な改革は、国民年金制度、医療保険制度、医療提供体制の改革が実行されていますが、この数ヶ月の政治の混迷また経済の減速により、国の財政負担問題、国民の自己負担問題と将来展望が描ききれない状態となっております。この数年が日本の大きな転換時期になると思われま

ところで、前回2006年12月末の日本のカトリックの現状について報告致しましたが、今回、日本カトリック中央協議会より2007年12月末現在の「カトリック教会現勢」が発表されました。日本の全信者（聖職者、修道者含む）は、44万7720人で前年比4851人少なくなっております。この原因は、過去1年間所在を確認できない信徒を省いたためであります。信徒数は、43万9360人で、男女別では男子17万5147人（約40%）、女子26万4213人（約60%）となっております。司教・司祭1515人（日本籍904人、外国籍611人）助祭34人（日本籍28人、外国籍6人）、大神学生は134人、小神学生57人となっております。修道女は5944人（日本籍5582人、外国籍362人）、修道士は202人（日本籍105人、外国籍52人）、洗礼を受けた人が7275人（幼児洗礼3617人、成人3658人）、結婚は2899組（カトリック信徒同士279組）となっております。主な項目を10年前の1997年と比べてみると、全信者は5808人の増加、司教・司祭・助祭は237人の減、修道士・修道女は673人の減、小教区は13教会の減、巡回教会は6教会増、幼児洗礼は1083人減、成人洗礼は434人減、結婚については6185組減っており、昨年は10年前の約3割になっております。また、本年7月31日現在の司祭・修道士の数とその平均年齢等も発表されました。司祭は1589人（平均62歳、日本籍932人、外国籍657人）、終身助祭は22人（平均69歳）、助祭（37歳）となっております。修道士は206人（平均63歳、日本籍154人、外国籍52人）、司教は枢機卿1人、名誉（引退）司教8人、大司教3人、司教12人、補佐司教2人となっております。外国籍司祭の国籍では、スペイン（88人）、アメリカ（87人）、イタリア（84人）、フィリピン（39人）、フランス（38人）の順で多い。修道会・宣教会で司祭が最も多いのはイエズス会（210人）で全司祭の13%を占めています。次いで神言修道会（110人）、フランシスコ会（102人）となっております。1549年、聖フランシスコ・ザビエルが来日しカトリックが宣教されて約400年が経過しておりますが、この10年間の日本のカトリックの趨勢を示す数値を見る限りにおいては、衰退の現象を示していると認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われま

11月24日、長崎市において私どもは「ペテロ岐部と187殉教者」の列聖・列福式を迎えます。貴協会より崔会長始め関係者の皆様方のご出席頂く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また、この式典に際しての参列者の「救護班」として、貴会所属の医師、看護師の関係者のご協力も頂き、「日本カトリック医師会・看護協会」また長崎市在住のカトリック医師・看護師の関係者、後方医療施設としての「聖フランシスコ病院」及び私どもの医師、看護師との連合体での対応が実現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貴会関係者のご理解あるご協力対し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この韓日合同の「救護班」の編成の機会を与えて頂いたことも神様の一つの御恵みと信じております。

今回の列聖・列福式ですが、フランシスコ・ザビエルが来日し宣教活動を開始し、その後イエズス会の巡察使ヴァリニャーノ師により、日本の文化、宗教を理解しカトリックを宣教する基本方針が示されました。しかしながら、当時（1600年代）の為政者の考えは、仏教、神道、儒教を根幹とする伝統文化継続であり、唯一絶対の神への信仰のカトリックの布教に対し、外国の宗教としてカトリックの排除また信者への迫害が開始されました。今回の式典は、当時の司祭であるペテロ岐部及び3名の司祭、184名の信徒の迫害による殉教の列聖・列福です。

2001年3月31日、教皇ヨハネ・パウロ二世は、日本の司教たちに向けて「日本の教会の最初の世紀は、殉教者たちが示した勇気と神への忠実さという信仰の消えないしるしによって飾られました。彼らの英雄的なあかしは、日本の教会の過去を、十字架につけられた主の輝きで飾るだけでなく、いまの日本の教会の歩むべき道と、将来の使命と約束を示しています」と語られました。心強い予言的な内容と思います。また、1590年代の半ばは、カトリック全信徒22万人に対し40名足らずの司祭であったとの史実が明らかとなっております。

「わたしをだましたつもりですか。わたしには夜道などありません。まして刑場への道は鮮やかに見えます」刑場に引き行く役人に殉教者が投げた一言です。
神に感謝